
인지선별검사 시행 매뉴얼

CIST(Cognitive Impairment Screening Test) Manual

차 례

매뉴얼 활용 방법	1
이 책의 구성	1
1. 검사 도구	2
인지선별검사 소개	2
2. 검사 준비	3
검사 준비	3
기본정보 확인	3
검사 유의사항	3
3. 검사 시행 및 채점	
검사 시작	9
지남력	
1) 시간 지남력	10
2) 장소 지남력	11
기억력	
3) 기억등록	12
주의력	
4) 숫자 바로 따라 말하기	14
5) 거꾸로 말하기	15
시공간기능	
6) 도형모사	16
집행기능	
7) 시각추론1	18
8) 시각추론2	19
9) 언어추론	21
기억력	
10) 기억회상/재인	23
언어기능	
11) 이름대기	26
12) 이해력	27

집행기능

13) 유창성	28
---------------	----

매뉴얼 활용 방법

- 본 매뉴얼은 치매선별검사 시 검사자 변인에 의한 오차를 최소화하고 검사의 신뢰도 및 정확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책의 구성

- 각 문항에 대한 설명은 지시문, 검사목적, 시행방법, 채점기준으로 나누어 제시합니다.
- 본 매뉴얼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호로 분류합니다.

고딕체 굵은 글씨	검사목적, 시행방법, 문항배점, 채점기준의 원칙
!!	해당 문항에서 반드시 기억할 내용
😊	해당 문항에 대한 부연설명 및 허용 가능한 사항
×	해당 문항에서 하면 안 되는 것과 자주 범하는 오반응
이럴 땐 이렇게!	해당 문항의 시행과정에서 검사자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항 선별검사 담당자가 자주 접하는 상황에 대한 해결 방안
하늘색 바탕	공식 지시문
“바다색 글씨”	검사자가 할 수 있는 바른 예시문
“벽돌색 글씨”	검사자가 실수하기 쉬운 틀린 예시문

인지선별검사 소개

- 개발배경**
- 기존 치매안심센터에서 사용하였던 치매선별검사도구는 10년 이상 동일하게 반복 사용되면서 문항의 답을 외워서 답변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때문에 검사항목의 현실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새로운 치매선별검사도구 개발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검사도구는 언어 및 문화적 배경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제한점이 존재하여 해외 도구 번안판으로는 우리나라 실정을 적절히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국가 치매검진사업에 활용이 용이하고 인지기능저하 변별력이 우수한 도구 개발을 목적으로 인지선별검사를 고안하였습니다.
- 검사개요**
- 검사는 13문항, 30점 만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인지기능이 양호함을 시사합니다.
 - 검사 시간은 평균적으로 10분 가량 소요되나, 대상자 특성에 따라 편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검사 결과는 연령, 학력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여 해석합니다.
- 검사방식**
- 대상자와 검사자가 1:1로 마주보고 앉아 문답을 하는 방식으로 시행합니다.
- 인지기능
평가영역**
- 다양한 인지기능을 고루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 지남력, 기억력, 주의력, 시공간기능, 언어기능, 집행기능을 포함합니다.

<인지선별검사에서 평가하는 인지기능>

인지기능		내용
지남력 Orientation	시간 time	현재 날짜에 대한 인식 능력 평가
	장소 place	지금 있는 장소에 대한 인식 능력 평가
기억력 Memory	기억등록 registration/encoding	핵심 내용을 부호화하는 능력 평가
	기억회상 free recall	언어정보의 저장 및 인출 평가
	재인 recognition	저장된 언어정보 인출시 단서의 영향력 평가
주의력 Attention	숫자 바로 따라 말하기	청각적 주의력과 주의집중의 폭 평가

	digit span forward 거꾸로 말하기	청각적 주의력과 작업기억 능력 평가
	word span backward /working memory	
시공간기능 Visuospatial function	도형 모사 copy	시각자극에 대한 지각 및 구성 능력 평가
언어기능 Language function	이름대기 naming	대면 이름대기 능력 평가
	이해력 comprehension	언어 이해력 평가
집행기능 Executive function	시각추론 visual reasoning	시각적 자극을 이용한 추론 능력 평가
	언어추론 verbal reasoning	언어적 자극을 이용한 추론 능력 평가
	유창성 fluency	생산성과 인지적 유연성 평가

검사 준비

- 검사 환경**
- 조용하고 분리된 공간이 좋습니다.
 -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요소(달력, 핸드폰 등)를 제거합니다.
 - 주변 환경의 방해를 최소화합니다.
 - 검사자와 대상자만 검사실에 입실하고, 보호자나 동행인은 밖에 대기합니다.

검사 준비물

- 검사용지 (인지선별검사)
- 클립보드
 - ※ 대상자가 검사자의 기록을 볼 수 없도록 클립보드를 받쳐 사용합니다. 혹은 책상 표면이 고르지 못한 경우, 대상자의 신체적 문제로 책상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검사지를 클립보드에 받쳐 대상자에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연필, 지우개 등 필기구
- 초시계
- 돋보기
 - ※ 대상자가 돋보기를 가져오지 않은 경우를 대비하여 구비해두면 좋습니다.
- 음역 조절이 가능한 음성 증폭기
 - ※ 청력 저하가 심한 대상자의 경우를 대비하여 구비해두면 좋습니다.

검사 전 안내

- 대상자가 평소의 인지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검사 전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하도록 하며, 금식이 필요한 검사가 아니라는 것을 안내합니다.
- 평소 안경(돋보기)이나 보청기를 착용하는 대상자라면 반드시 지참하도록 안내합니다.

<더 알아보기> 검사 시행을 위한 독립된 환경이 필요한 이유

현장에서는 방문검사 등으로 열린 공간에서 검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대상자가 검사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해 보유한 인지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할 수 있고, 솔직한 답변을 듣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대기자는 검사 내용에 미리 노출되어 표준적인 검사시행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경로당, 노인회관, 행사부스 등 외부 검사 상황이라도 최대한 분리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본정보 확인

- 목적** ▪ 검사 결과의 해석을 위해 대상자의 연령, 학력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 연령** ▪ 연령은 주민등록상 연령이 아닌 실제 생년월일 기준의 **만 나이**를 사용합니다.
- 연령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 실제 생년월일을 질문합니다.
예) “**호적에 올린 생일 말고 실제로 태어나신 때가 언제세요?**”
- 생년월일이 양력인지 음력인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 **만 나이 산출 시 양력 생년월일로 계산합니다.** 음력으로 생년월일을 답한 경우 양력으로 변환하여 사용합니다.
- 대상자가 자신의 출생년도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띠’를 질문하여 출생년도를 유추합니다.
- 보호자를 통해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 학력
(교육년수)** ▪ 문해/비문해 여부를 확인합니다.
- 학력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와 같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공식 학제로 인정하는 경우에만 교육년수로 산정합니다. 즉, 학력인정 시험(검정고시)에 합격한 것도 학력으로 인정합니다.
예) 평생학습교육원, 야학, 노인대학 등은 법률상 공식 학제가 아니므로 학력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대상자의 학력이 중퇴라면 완전히 마친 학년까지 학력으로 인정합니다.
예) 중학교 2학년 중퇴의 대상자라면, 교육년수는 중학교 1학년까지에 해당하는 7년 (초등학교 6년 + 중학교 1학년)
- 대상자에게 민감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우회적으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 “**예전에 공부는 어디까지 하셨어요?**”

<더 알아보기> 연령 - 만 나이 계산하기

예시: 1938년 12월 10일생 대상자, 2021년 9월 8일 검사 시행


 - 1938년 12월 10일
 만 82세 8개월 28일

일: 한 달을 30일로 가정. 월에서 30일을 빌려와서 계산

$$(8일 + 빌려온 30일) - 10일 = 28일$$

월: 일 계산에서 한 달이 빠짐. 연에서 12개월을 빌려와서 계산

$$\{(9월 - 빌려준 1개월) + 빌려온 12개월\} - 12월 = 8개월$$

년: 월 계산에서 1년이 빠짐

$$(2021년 - 빌려준 1년) - 1938년 = \text{만 82세(이하 개월, 일은 버림)}$$

<더 알아보기> 연령 - 띠별 출생년도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1912	1913	1914	1915	1916	1917	1918	1919	1920	1921	1922	1923
1924	1925	1926	1927	1928	1929	1930	1931	1932	1933	1934	1935
1936	1937	1938	1939	1940	1941	1942	1943	1944	1945	1946	1947
1948	1949	1950	1951	1952	1953	1954	1955	1956	1957	1958	1959
1960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더 알아보기> 학력 - 교육년수 확인하기

- ‘학교를 안 다녔다’고 대답하는 경우에는 무학일 수도 있지만 학업을 제대로 마치지 못했다는 의미일 수도 있으므로 **“잠깐이라도 다니신 적이 있나요?”**와 같이 질문하여 정확히 확인합니다.
- 무학인 경우 문해 여부를 확인하여주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문해는 ‘읽기가 가능하고, 뜻을 전달할 수 있는 간단한 쓰기가 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읽고 쓰기가 불가능하다면 비문해로 판단하여 기준을 적용합니다.
- 학력이라는 질문으로 인해 최종학력만 대답하는 경우도 있어 만약 ‘국민학교 졸업했다’라고 대답한다면 이때에도 **“국민학교까지만 다니신 건가요? 아니면 중학교 입학하셨다가 그만두게 되신 건가요?”**와 같은 추가 질문으로 중퇴 여부를 확인합니다.
- 학력을 응답하기 꺼려하거나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대상자에게는 검사부터 시행하고 이후 다시 확인합니다. 가능하다면 보호자에게 확인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더 알아보기> 학력 - 대상자의 학령기 당시 학제 확인하기

과거의 학제는 현재와 다르기 때문에 대상자의 학령기 당시 학제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초등교육과정(현재의 초등학교에 해당)은 일제 강점기에만 해도 보통학교, 소학교, 국민학교로 명칭이 바뀌었고 교육연한도 3~4년, 4~6년, 6년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만약 대상자가 ‘고졸’로 대답했다면 **“어르신은 학교를 다니시던 때에도 지금처럼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이었나요?”**라고 확인합니다.

검사 유의사항

- 매뉴얼에서 제시하는 시행방법과 채점기준을 준수합니다.
- 모든 문항을 제시된 순서대로 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제시된 지시문 그대로 질문합니다. 단, 편의상 높임법을 변경하는 등의 활용은 가능합니다.
예) “이 장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 “여기 장소 이름이 뭐죠?”
- 대상자의 모든 대답에 대해 정답 여부를 알려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검사 도중 뿐만 아니라 검사 종료 후에도 정답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예) “맞았습니다.”, “틀렸습니다.”
정답을 알려달라고 요구하는 대상자에게는 “이 검사는 답을 알려드릴 수 없고, ○○○님 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정답을 알려드리지 않으니 이해해주세요.”라고 안내합니다.
- 모른다고 대답해도 설불리 오답으로 처리하지 말고 추측해서 대답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 오답을 개선시키기 위한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예)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시겠어요?”
- 대상자에게 어떠한 힌트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 대상자가 두 가지 이상으로 대답할 때에는 반드시 한 가지만 선택하도록 요구합니다.
- 대상자가 대답을 스스로 정정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대답한 반응으로 채점합니다.
- 검사 중에는 대상자의 반응을 그대로 기록하고, 대상자가 기록을 볼 수 없도록 클립보드를 사용하는 등 주의를 기울입니다.
- 대상자가 진행 도중에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면 격려하여 모든 검사를 잘 마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 긍정적인 피드백으로 대상자를 격려할 수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 대상자의 응답이 현저히 지체되는 경우, “대답해주시면 됩니다.”라고 말하거나, 반복 제한이 없는 항목에 한하여 질문을 재차 하는 등 응답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 다음 문항과 같이 반복 횟수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지시문의 반복 제시가 가능합니다.
3. 기억력(기억등록): 1, 2차 시행 이후 추가로 반복 제시 불가합니다.
4. 주의력(숫자 바로 따라말하기): 각 1회 제시로 제한합니다.
5. 주의력(거꾸로 말하기): 일부 추가 요청하는 경우에 2회까지 가능합니다.
12. 언어기능(이해력): 일부 추가 요청하는 경우에 2회까지 가능합니다.

<더 알아보기>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

- 신체, 언어, 감각기능 등에 장애가 있는 대상자의 경우, 표준절차대로 검사 시행 시 장애와 관련된 검사 항목에서 과소평가될 수 있습니다.
- 장애로 인하여 시행이 불가능한 문항은 최대한 수정하여 사용하거나 건너뛰고 검사를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는 기준 적용이 어려우며, 검사 결과 해석 시 한계점을 분명히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장애의 특성 및 일부 시행 가능한 문항의 점수, 검사자 및 의사의 판단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론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선별검사로는 인지적 하 유무의 판별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검사시작 검사소개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_____님의 기억력과 사고능력을 살펴보기 위한 질문들을 드리겠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최선을 다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소개 목적 검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검사 중 나타날 수 있을 상황에 대해 사전에 안내하고 대상자와의 관계를 형성합니다.

검사 시작 전에 대상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안내 드릴 수 있습니다.

- 검사 소요시간
- 문제는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가 섞여 있으며,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문제를 제시함
- 정답 여부를 알려줄 수 없음

※ 보호자 등 동행인과 함께 방문한 경우, 동행인에게 검사 소요시간을 알린 후 검사는 검사자와 대상자 1:1로 진행되기 때문에 검사실 밖에서 대기하여 줄 것을 안내합니다.

지시문

“오늘 날짜를 말씀해 주세요.

(1) 오늘은 몇 년도, (2) 몇 월, (3) 며칠입니까?

(4) 오늘은 무슨 요일입니까?”

검사목적 현재 날짜에 대한 인식 능력 평가

시행방법 검사 시행일을 질문합니다.

!! 주변에서 달력 등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요소를 제거하고 질문합니다.

☺ 년, 월, 일, 요일을 순서대로 질문할 필요는 없으며, 문항을 하나씩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올해는 몇 년도입니까?” “지금은 몇 월입니까?” “오늘은 며칠입니까?” “오늘은 무슨 요일입니까?”).

이럴 땐 이렇게!

- 연도는 4자리 숫자로 답해야 하며, 만약 2자리 숫자로만 답한다면 “네 자리 숫자로 이야기해 주세요.”라고 알려줍니다.

- ‘기해년’, ‘경자년’과 같은 육십갑자로 답한 경우에는 “네, 좋습니다. 그럼 숫자로 하면 몇 년도일까요?”라고 하며 숫자로 말하도록 유도합니다.

문항배점 각 항목당 1점씩, 총 4점

채점기준 검사 시행일의 년, 월, 일, 요일이 정답입니다.

!! 대상자가 답을 수정하는 경우, 최종적으로 답한 반응으로 채점합니다.

☺ 음력으로 답하더라도 정확한 날짜라면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 정월(1월), 동짓달(11월), 설달(12월)이나 초하루, 그믐 등 순우리말로 답하더라도 정확한 날짜라면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 추가 질문을 통해 받은 대답이 정답이면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 추가 질문을 했음에도 연도의 일부만 대답하거나(“21년” “22년” 등) 육십갑자로만 대답한다면(“신축년” “임인년” 등) 오답으로 처리합니다.

<더 알아보기> 날짜의 순우리말

1일	2일	3일	4일	5일
초하루	초이틀	초사흘	초나흘	초닷새
6일	7일	8일	9일	10일
초엿새	초이레	초여드레	초아흐레	열흘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열하루	열이틀	열사흘	열나흘	보름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열엿새	열이레	열여드레	열아흐레	스무날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스무하루	스무이틀	스무사흘	스무나흘	스무닷새
26일	27일	28일	29일	그달의 마지막 날
스무엿새	스무이레	스무여드레	스무아흐레	그믐

지시문

“지금 _____님이 계신 여기는 어디인가요?
이 장소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세요.”

검사목적 지금 있는 장소에 대한 인식 능력 평가

시행방법 검사 시행 장소를 질문합니다.

- ☺ 대상자가 지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현 장소와 매우 동떨어진 장소의 이름을 예로 들어 이해를 도울 수 있습니다[예: (경로당에서 시행할 때) 지금 여기가 _____님 집인가요? 그럼 어디인가요?].

이럴 땐 이렇게!

- 지역명(‘비산동’, ‘홍천’ 등)으로 대답하거나, 공간 명칭(‘사무실’, ‘검사실’ 등), 공간의 용도(‘치매검사 하는 곳’)로 대답하면 “여기에 ‘어디’ 있다고 하고 오셨나요?” 등으로 추가 질문하여 확인합니다.

문항배점 1점

채점기준 현 장소의 구체적 명칭 또는 현 장소를 지칭하는 일반적인 단어를 정확히 말해야 정답입니다.

- !! 대상자가 답을 수정하는 경우 최종적으로 답한 반응으로 채점합니다.
- ☺ 장소의 명칭은 000보건소, 00병원, 00치매안심센터 등 구체적으로 지칭하거나 병원, 보건소, 구청, 치매센터, 경로당 등 일반적인 단어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 ✗ 단, 구체적인 장소명을 말하더라도 틀린 장소명을 말하는 경우(예: 00병원→□□병원)에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지시문

(1차 시행) “지금부터 외우셔야 하는 문장 하나를 불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잘 듣고 따라 해 보세요.

‘민수는 / 자전거를 타고 / 공원에 가서 / 11시부터 / 야구를 했다’”

(대상자 반응)

(2차 시행) “잘 하셨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다시 여쭙어 볼 테니 잘 듣고 따라 해 보세요.

‘민수는 / 자전거를 타고 / 공원에 가서 / 11시부터 / 야구를 했다’”

(대상자 반응)

(대상자 반응 후) “제가 이 문장을 나중에 여쭙보겠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검사목적 짧은 문장을 듣고, 핵심 명사(내용)를 기억하는 능력을 평가

시행방법 같은 문장을 2회에 걸쳐 들려준 후 기억하도록 합니다.

!! 문장을 부르기 전, 대상자가 검사자의 말에 귀 기울이도록 주의를 집중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상자가 검사자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 가능한 명료한 발음으로 또박또박 문장을 들려주어야 합니다.

!! 1차 시행에서 문장을 정확히 따라 말하더라도 2차 시행을 반드시 진행합니다.

!! 대상자가 완벽한 문장으로 따라 말하지 못하더라도 두 번 시행한 후 “제가 이 문장을 나중에 여쭙보겠습니다. 잘 기억하세요.”라는 이야기를 반드시 하고 다음 과제로 넘어갑니다.

☺ 문장을 다시 말하는 것을 어색해하는 대상자에게는 “조금이라도 생각나는 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라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 문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에 들려주어야 하며, 어절로 끊어서 따라 말하도록 하면 안 됩니다. 문장을 불러주는 도중 대상자가 따라하면 문장을 끝까지 다 들은 다음 따라 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 문장은 2번만 불러줄 수 있으므로, 2차 시행에서도 문장을 정확히 따라 말하지 못하였더라도 추가로 더 불러주지 않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 문장을 불러주는 도중에 따라서 말하면 “**끝까지 다 들은 후 따라해주세요요.**” 라고 말한 후 그 다음 어절부터 불러줍니다. 이는 모든 대상자가 기억해야 하는 정보를 같은 횟수로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문항배점 점수 없음

채점기준 대상자가 말한 순서에 상관없이 맞은 핵심 명사에 ○표를 합니다.

!! ‘민수’, ‘자전거’, ‘공원’, ‘11시’, ‘야구’가 핵심 명사입니다.

☺ 조사나 서술어는 정확히 맞이지 못하여도 핵심 명사가 맞다면 ○표로 표시합니다.

4

주의력 숫자 바로 따라 말하기

지시문

**“제가 불러드리는 숫자를 그대로 따라 해 주세요.
한 번만 불러드릴 수 있으니 잘 들어주세요.”**

(1) 6-9-7-3 [육구칠삼]

(2) 5-7-2-8-4 [오칠이팔사]

검사목적 청각적 주의력과 주의 집종의 폭

시행방법 일련의 숫자를 동일한 순서로 따라 말하도록 합니다.

- !! 숫자를 부르기 전, 대상자가 검사자의 말에 귀 기울이도록 주의를 집중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 한 번씩만 불러줄 수 있으므로 대상자가 검사자의 말에 귀 기울이도록 주의를 집중시킨 후 시작합니다.
- !! 두 항목을 모두 시행합니다.
- ☺ 숫자를 1초에 하나씩 리듬을 두지 않고 불러주며 마지막 숫자에서는 목소리의 높낮이를 조금 낮춥니다.
- ☺ 연습시행으로 “제가 1-2-3 [일이삼] 하고 부르면, 똑같이 1-2-3 [일이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라고 하여 이해를 도울 수 있습니다. 제시된 연습시행으로만 예시를 들어줍니다.
- ✗ 하나, 둘, 셋, 넷 등으로 수사를 바꿔서 제시하지 않습니다.
- ✗ 각 항목의 숫자(6-9-7-3, 5-7-2-8-4)를 임의로 대체하여 불러주지 않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 대상자가 “뭐라고? 못 들었어.” 등으로 다시 불러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최대한 생각나시는대로 말씀해주시면 됩니다.**”라고 말하며 다시 불러주지 않습니다.

문항배점 각 항목당 1점씩, 총 2점

채점기준 ‘육구칠삼’, ‘오칠이팔사’를 정확히 따라 말해야 정답입니다.

- !! 숫자 한 개만 틀려도 오답입니다.

5

주의력 거꾸로 말하기

지시문

“제가 불러드리는 말을 끝에서부터 거꾸로 딱라 해 주세요.”
금수강산

검사목적 청각적 주의력과 작업기억 능력

시행방법 불러준 단어를 역순으로 말하도록 합니다.

- !! 단어를 부르기 전, 대상자가 검사자의 말에 귀 기울이도록 주의를 집중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 대상자의 주의를 잘 집중시킨 후에 “**금수강산**”이라고 불러줍니다.
- ☺ 대상자의 이름을 활용하여 연습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홍길동”(대상자 이름)님 이름을 거꾸로 하면 ‘동길홍’ 이렇게 되지요? 마찬가지로 제가 불러드리는 말을 거꾸로 말해주세요.**”라고 하여 이해에 도움을 줍니다.
- ☺ 청력 저하로 인해 정확히 듣지 못했거나 일시적으로 부주의하여 지시를 정확히 듣지 못한 대상자에게는 한 번 더 불러주어 두 번의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 ✗ 대상자의 반응을 기다리는 중에 다른 힌트는 주지 않습니다.
- ✗ 다른 단어를 임의로 대체하여 불러주지 않습니다.

문항배점 1점

채점기준 ‘산강수금’이라고 정확히 거꾸로 말해야 정답입니다.

- !! 음절 한 개만 틀려도 오답입니다.

지시문

([그림 1]을 가리키며) “여기 점을 연결하여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과 똑같이 되도록 (아래 반응 공간을 가리키며)
같은 위치에 그려보세요. 점을 연결해서 그리시면 됩니다.”

검사목적 시각 자극에 대한 지각 및 구성 능력의 평가

시행방법 점을 연결해 그린 도형을 제시하고 이와 똑같이 점을 연결하여 도형을 따라 그리게 합니다.

☺ 대상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시를 잘 이해하지 못한 경우에는 “(여기 있는) 점을 연결해서” 그리면 된다는 점을 다시 설명해 줍니다.

☺ 지필 검사에 대해 부담감을 보이는 대상자에게도 “보이는 대로 최선을 다해 그리시면 됩니다.”라고 격려합니다.

✗ 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 지우개의 사용- 지우개로 지우고 다시 그릴 수 있으나 대상자가 지우개를 계속 들고 있으면 지우고 그리기를 반복할 수 있어 처음부터 지우개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대상자가 검사 도중 지우개를 요청하면 줄 수 있습니다. 지우개로 지우고 수정한 경우, 최종적으로 수정한 것으로 채점합니다.)
- 대상자가 점의 위치만 표시하는 경우 점을 연결하여 선을 긋도록 설명해줍니다.

문항배점 2점

채점기준 2점: 오류 없음 / 1점: 오류 1개 / 0점: 오류 2개 이상

!! 점 2개를 연결한 선은 총 12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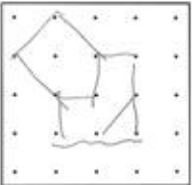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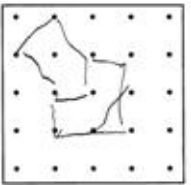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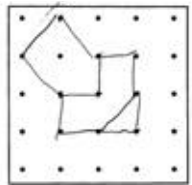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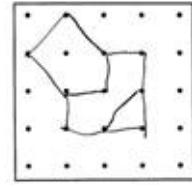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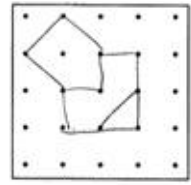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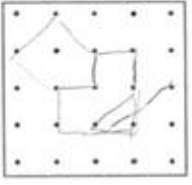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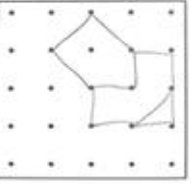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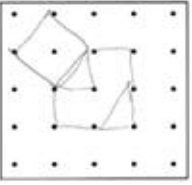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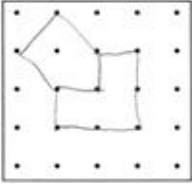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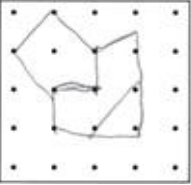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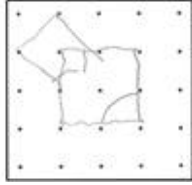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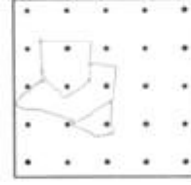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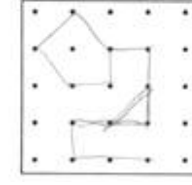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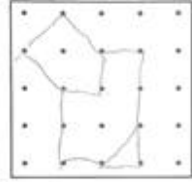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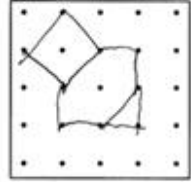
!! 오류는 다음에 해당합니다.

- 1) 생략된 선
- 2) 추가된 선
- 3) 다른 위치에 그려진 경우

!! 전체 그림의 모양은 정확하지만 다른 위치에 그린 경우에는 오류 1개로

계산합니다. 즉, 오류 없이 모양을 그렸으나 위치만 다른 곳에 그렸다면, 오류 1개로 계산하여 1점이 됩니다(예: 1점 채점 예에서 두 번째 그림).

!! 점으로부터 3mm 이내로 경미하게 벗어나 그린 경우는 오류로 인정하지 않으나, 점으로부터 3mm 이상 벗어나게 그린 경우에는 오류로 채점합니다(예: 1점 채점 예에서 다섯 번째 그림).

채점 예					
2점					
1점					
0점					

지시문

([그림2]를 가리키며) “여기 모양들이 정해진 순서로 나옵니다.
모양들을 보면서 어떤 순서로 나오는지 생각해 보세요.
자(도형을 왼쪽부터 하나씩 가리키며), 네모, 동그라미, 세모, 네모, 빈칸, 세모.
그렇다면 여기 빈칸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할까요?”

검사목적 시각적 자극을 이용한 추론 능력 평가

시행방법 여러 도형이 나열된 순서를 보고 빈칸에 알맞은 도형을 추론하게 합니다.

- ☺ 대상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손가락으로 그림을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하나씩 가리키면서 다시 한 번 지시를 반복합니다(예: “여기 모양들을 보면 네모, 동그라미, 세모, 네모, 빈칸, 세모 이런 순서로 나옵니다. 여기 빈칸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할까요?”).

문항배점 1점

채점기준 동그라미가 정답입니다.

- !! 대상자가 직접 동그라미를 빈칸에 그리거나, 말로 “동그라미” 또는 “원”으로 대답하거나, 제시된 동그라미를 손으로 가리키는 경우 모두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 ☺ 직접 동그라미를 그린 경우 도형 안을 까맣게 색칠하지 않아도 되며 정답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 빈칸에 직접 그리거나 손으로 가리킨 도형과 구두로 답한 도형이 다른 경우에는 대상자에게 확인 후 하나만 선택하도록 하여 채점합니다.

지시문

([그림3]의 맨 앞 사각형을 가리키며) “여기 네 칸 중의 한 칸에 별이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 사각형을 가리키며) “별이 이렇게 다른 위치로 이동합니다.
 어떤 식으로 이동하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사각형을 가리키며) “여기서는 네 칸 중에 별이 어디에 위치하게 될까요?”

검사목적 시각적 자극을 이용한 추론 능력 평가

시행방법 사각형의 사분면 중 한 곳에 위치한 별이 어떤 규칙에 따라 이동할 때 마지막에 도달할 위치를 추론하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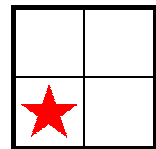
!! 지시 그대로 전달하도록 합니다.

☺ 대상자가 지시를 듣고도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저학력자인 경우에는 비유를 들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상자 안에 별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상자를 흔들면 별이 움직입니다. (맨 왼쪽 상자를 가리키며) 이 상자를 흔들었더니 (두 번째 상자를 가리키며) 별이 움직여서 여기 왔습니다. 다시 흔들었더니 별이 (세 번째 상자를 가리키며) 여기 왔습니다. 한 번 더 상자를 흔들면 이번에는 별이 어디에 오게 될까요? (네 번째 상자 안을 가리키며) 여기 네 칸 중에 가리켜 보세요.”

✗ 대상자에게 규칙에 해당하는 내용 또는 힌트가 될 수 있는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이 검사는 대상자 스스로 규칙을 찾아낼 수 있는지 보는 것이므로 “별이 회전한다”거나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등의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문항배점 1점

채점기준 사분면 중 좌측 하단이 정답입니다.



!! 규칙은 별이 반시계 방향으로 한 칸씩 이동하는 것입니다.

☺ 대상자가 직접 별을 그리거나, 체크 혹은 동그라미 등으로 표시를 하거나, 손가락으로 위치만 가리킬 수 있습니다. 위치만 정확하다면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지시문

([그림4]를 가리키며) “카드에 숫자와 계절이 하나씩 적혀 있습니다.
 ‘1-봄-2-여름~’ 이렇게 연결되어 나갑니다.
 (확살 표시된 빈칸을 가리키며) 여기는 무엇이 들어갈 차례일까요?”

검사목적 언어적 자극을 이용한 추론 능력 평가

시행방법 어떤 규칙에 따라 차례로 나열된 숫자와 단어를 제시하고 빈칸에 알맞은 숫자와 단어를 추론하게 합니다.

!! 지시 그대로 전달하도록 합니다.

☺ 대상자가 지시를 듣고도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를 때에는 검사자가 대상자와 함께 자극을 처음부터 읽은 후 다시 한 번 지시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 비문해자일 경우(글씨를 읽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자가 직접 [빈 카드]를 포함하여 자극 전체를 순서대로 읽어주고 정답을 말하도록 합니다. “카드에 숫자와 계절이 하나씩 적혀 있습니다. 제가 차례대로 읽어 보겠습니다. (확살 표시된 빈칸을 가리키며) 여기 빈 카드에 무엇이 들어갈지 말씀해보세요. (처음부터 하나씩 읽어드립니다) 1-봄-2-여름-3-가을-빈 카드-겨울-5-봄-6-빈 카드. 여기 빈 카드에 무엇이 들어가야 할까요?” (필요하면 처음부터 빈 카드 앞까지 다시 읽어주며 응답을 받습니다.)

✗ 이 과제 또한 다른 추론 과제와 같이 대상자 스스로 규칙을 찾아내야 하므로 대상자에게 규칙에 해당하는 내용 또는 힌트가 될 수 있는 설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즉, “숫자와 계절이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나온다”거나 “숫자 한 번, 글자 한 번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등의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문항배점 빈칸 1개당 1점씩, 총 2점

채점기준 앞의 빈칸은 ‘4’, 뒤의 빈칸은 ‘여름’이 정답입니다.

!! 규칙은 숫자의 경우 자연수 1부터, 단어의 경우 사계절을 봄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되 숫자와 계절 단어를 번갈아 제시하는 것입니다.

지시문

“제가 조금 전에 외우라고 불러드렸던 문장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검사목적 언어정보의 저장 및 인출 평가

시행방법 기억하라고 제시한 문장을 외우고 있는지 단서를 주지 않고 확인합니다.

!! 어떠한 단서도 주지 않고 외워볼 수 있도록 합니다.

☺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대상자에게는 “조금 전에 외우라고 불러드렸던 문장” 또는 “한 문장의 이야기”를 말해 보라고 다시 주의를 환기시켜 질문합니다. 다른 과제의 내용(예: 날짜, 숫자, 봄 여름 그거, 금수강산 등)을 언급하는 경우에는 “그것 말고 조금 전에 외우라고 2번 불러드렸던 문장을 말씀해 주세요.”라고 다시 한 번 환기시킵니다.

☺ 앞서 기억등록에서 실패하였던 대상자에게도 동일하게 시행합니다. 대상자가 더 이상 자유롭게 회상할 수 있는 내용이 없음을 확인한 후, 재인 과제로 진행합니다.

이럴 땐 이렇게!

- 기억회상은 많은 대상자가 부담스러워하고 어려워하는 과제입니다. 대상자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좌절하는 경우, “모든 문제를 다 잘 해결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최대한 기억나는대로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등으로 격려합니다.

문항배점 핵심 명사 1개당 2점씩, 총 10점

채점기준 단서 없이 정확하게 회상한 핵심 명사인 ‘민수’, ‘자전거’, ‘공원’, ‘11시’, ‘야구’가 정답입니다.

!! 회상할 때의 순서는 채점에 고려하지 않으며, 핵심 명사 외 조사나 서술어를 다르게 말하는 것은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대상자가 핵심 명사를 정확하게 이야기한 경우, 자유회상 칸에 있는 단어에 표시합니다.

기억력 재인

지시문

“(사람 이름) 제가 아까 어떤 사람의 이름을 말했는데 누구일까요?

영수, 민수, 진수?

(교통수단) 무엇을 타고 갔습니까? 버스, 오토바이, 자전거?

(장소) 어디에 갔습니까? 공원, 놀이터, 운동장?

(시간) 몇 시부터 했습니까? 10시, 11시, 12시?”

(한 것) 무엇을 했습니까? 농구, 축구, 야구?

검사목적 저장된 언어정보 인출시 단서의 영향력 평가

시행방법 자유회상의 수행이 끝난 후, 자유회상에서 핵심 명사를 맞히지 못한 항목에 한하여 단서를 제시하고 재인하게 합니다.

!! 자유회상의 수행이 끝난 것을 확인한 뒤 (“더 이상 생각나는 것은 없으신가요?”), 자유회상에서 정답을 말하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만 시행합니다.

예) “민수가 자전거를 타고... 거기 어딘가 가서... 뭘 했더라?”라고 반응했다면, ‘사람 이름’과 ‘교통수단’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자유회상에서 [민수]와 [자전거]에 대해 4점 획득), ‘장소’, ‘한 것’, ‘시간’에 대해서만 묻습니다.

문항배점 핵심 명사 1개당 1점씩, 총 5점

채점기준 핵심 명사인 ‘민수’, ‘자전거’, ‘공원’, ‘11시’, ‘야구’가 정답입니다.

!! 검사 용지의 재인 항목에서 대상자가 선택한 항목에 표시합니다.

!! 자유회상에서 정답을 말하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만 시행하므로 기억 회상과 재인의 점수를 모두 합하더라도 최대 점수는 10점입니다. 자유회상에서 정답을 말했다면 2점, 재인 과제에서 답했다면 1점에 표시합니다.

☺ 첫 번째 재인 항목의 질문을 들은 뒤, 그 뒤의 항목에 대한 핵심 명사들을 질문 전에 자발적으로 모두 이야기하더라도 이는 자유회상이 아닌 재인 과제 점수로 채점합니다(맞는 단어 하나 당 1점씩).

☺ 세 가지 보기를 불러 주기 전에 재인 과제의 지시(“아까 말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무엇을 타고 갔나요? 어디에 갔나요? 무엇을 했나요? 몇 시부터 했나요?”)만 듣고 핵심 명사를 바르게 답한 경우에도 자유회상이 아닌 재인 과제 점수로 각각 1점씩 줍니다.

지시문

([그림5]를 가리키며) “여기 있는 이 그림의 이름을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검사목적 기본 언어 기능 중 대면 이름대기 능력 평가

시행방법 물체가 그려진 선그림을 제시하고 물체의 이름을 말하게 합니다.

- !! 반드시 기억회상 및 재인 과제 이후에 실시하여 기억회상에 간섭을 일으키지 않도록 합니다.
- ☺ 그림 자극을 보여줄 때 용지의 다른 항목이 노출되어 대상자의 수행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문항배점 각 그림당 1점씩, 총 3점

채점기준 ‘칫솔’, ‘그네’, ‘주사위’가 정답입니다.

- ☺ 대상자가 오답을 말한 경우, 그 오답을 기록하고 0점으로 채점합니다.
[예: 칫솔 → 솔(오답 기록), 0점]
- ☺ 해당 물체의 사투리로 대답한 경우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예: 그네 → 그누, 거네, 굴베 등, 주사위 → 주사우 등]
- ☺ 해당 물체의 외국어로 대답한 경우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 ✗ 해당 물체의 상위 범주, 사용방법 설명은 정답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 그네 → 놀이기구(오답), 주사위 → 던지는 것(오답)]

지시문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행동으로 그대로 보여주십시오.
‘박수를 두 번 치고, 주먹을 쥐세요.’”**

검사목적 기본 언어 기능 중 언어 이해력 평가

시행방법 지시에 맞추어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반드시 기억회상 및 재인 과제 이후에 실시하여, 기억회상에 간섭을 일으키지 않도록 합니다.

☺ 청력 장애가 심한 대상자이거나 일시적으로 주의집중하지 않아 정확히 알아듣지 못한 대상자의 경우에는 지시를 1회 더 반복할 수 있습니다.

문항배점 1점

채점기준 ‘박수를 두 번 치고’, ‘주먹을 쥐는’ 두 가지 동작 모두 맞아야 정답입니다.

☺ 주먹을 쥐는 것은 한 손/양손, 왼손/오른손 모두 맞습니다.

지시문

**“지금부터 제가 그만이라고 말할 때까지
과일이나 채소를 최대한 많이 이야기해 주세요. 준비되었지요?
자, 과일이나 채소 이름을 말씀해 주세요. 시작!” (1분)**

검사목적 제한된 시간 내에 특정 조건의 단어를 최대한 많이 생성해 내는 과제를 통해 생산성(productivity)과 인지적 유연성(cognitive flexibility)을 평가

시행방법 과일 및 채소(야채) 이름을 제한 시간 동안 최대한 많이 응답하게 합니다.

!! 반드시 기억회상 및 재인 과제 이후에 실시하여 기억회상에 간섭이 없도록 합니다.

!! 제한 시간은 1분입니다. 지시를 마친 직후부터 시간을 재며, 대상자에게 재지시를 주거나 격려하는 것은 제한 시간 1분에 포함됩니다.

☺ 도중에 대상자가 다른 행동(전화를 받는 등 과제와 무관한 행동)을 하면 이를 적극 제지하여 과제에 집중하도록 합니다. 대상자가 수행 도중 질문을 하면 빠르게 답하고 다시 과제에 집중하도록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과일 먼저 해야 하나요, 채소 먼저 해야 하나요?”라고 물으면, 재빨리 “순서 상관없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과일이나 채소 이름을 어서 말씀해 주세요.”라고 촉구합니다. 대상자가 계속 반응하지 않고 한동안 뜸을 들인다면 “과일이나 채소 이름 더 말씀해 주세요.”라고 지시를 상기시킬 수 있습니다.

✗ 과일이나 채소 이름을 예시로 들어주지 않습니다. “사과, 감, 배주’ 같은 과일이나 채소 이름을 말씀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럴 땐 이렇게!

- 대상자가 “토마토도 되나요?”, “딸도 되나요?” 등 범주를 확인하는 질문을 하는 경우, “과일이나 채소면 모두 됩니다.” 라고 대답하며 대상자의 반응이 맞는지는 판단해주지 않습니다.
- 만약 대상자가 “제가 아까 사과를 했었나요?”처럼 중복 반응을 확인하는 질문을 하는 경우, “직접 판단해서 대답해주시면 됩니다.” 라고 대답하며 중복 확인을 해주지 않습니다.

문항배점 2점

채점기준 2점: 15개 이상 / 1점: 9-14개 / 0점 0~8개

- !! 정확하게 말한 과일 또는 채소 단어 개수를 세며, 중복 반응은 하나만 정답으로 인정하여 셉니다.
- !! 상위 개념의 단어와 하위 개념의 단어를 모두 함께 말한 경우(예: 사과, 홍옥, 부사, 아오리)에는 상위 단어 1개(예: 사과)는 정답 수에서 제외하고 하위 단어들(예: 홍옥, 부사, 아오리)의 개수만 포함됩니다.

*** 범주(상위개념/하위개념)**

과일 또는 채소가 상위 개념으로 하위 개념을 포괄하는 단어들과 함께 나온 단어는 제외, 그러나 상위 개념의 의미가 아닌 품종의 하나를 언급하는 경우에는 인정

예시1) 포도

- 포도, 청포도, 샤인머스켓 → 여기서 포도는 적포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청포도와 샤인머스켓도 각각의 품종으로 인정(3개 인정)
- 포도, 캠벨포도(=적포도), 청포도 → 여기서 포도는 상위 개념으로 이해하고 세부 항목을 언급한 것으로 봄(2개 인정)

예시2) 파

- 파, 쪽파 → 여기서 파는 대파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2개 인정)
- 파, 쪽파, 대파 → 여기서 파는 상위 개념으로 이야기하고 그 아래 세부 항목들을 언급한 것으로 봄(2개 인정)

예시3) 호박

- 호박, 애호박, 단호박 → 여기서 호박은 늙은호박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3개 인정)
- 호박, 늙은호박, 애호박, 단호박 → 여기서 호박은 상위 개념으로 이해하고 세부 항목을 언급한 것으로 봄(3개 인정)

*** 인정**

1) 견과류

- 밤, 아몬드, 호두, 잣, 은행 등
- 깨, 호박씨, 해바라기씨도 인정
- 땅콩은 두류(콩류)이나 견과류로 분류하는 오류가 잦아 혼동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정

2) 나물로 해 먹는 풀

- 취나물, 참나물, 돌나물, 비름나물(=비름) 등
- ※ 단, 산나물과 같은 일반 명사는 제외

3) 나무열매

- 대추, 야자, 올리브 등

4) 뿌리채소

- 고구마, 감자, 마, 연근, 우엉 등

*** 제외**

1) 과일/채소를 가공한 음식

- 무말랭이, 감말랭이, 홍시, 연시, 꽃감, 건포도, 시래기 등

2) 곡류, 잡곡류

- 콩, 팥, 쌀, 수수, 조, 보리, 귀리, 울무, 녹두 등

※ 단, 옥수수는 곡류로 분류되나 활용 형태에 따라 채소류로 볼 수도 있으므로 인정

3) 해조류

- 미역, 파래, 곰피, 다시마, 톳 등

*** 채점 예시**

1) 고추, 파리고추 - 2개 인정

→ 파리고추는 고추와 구분되는 품목으로 인정

2) 고추, 땡초 - 2개 인정

→ 땡초는 청양고추를 뜻하는 경상도 지역의 사투리이며, 청양고추는 고추와 구분되는 품종으로 인정

3) 고추, 파리고추, 청양고추 - 3개 인정

→ 여기서 고추는 홍고추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

4) 상추, 적상추, 양상추 - 3개 인정

→ 상추는 일반적으로 푸른 상추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 인정

5) 사과, 능금 - 1개 인정

→ 사과는 상위 개념의 단어로 사용

6) 사과, 청사과 - 1개 인정

→ 청사과는 특정 품종을 말하는 명칭이 아님

7) 무, 열무, 알타리 - 3개 인정

→ 무는 일반적으로 큰 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 인정

8) 무, 무우 - 1개 인정

→ 표준어 규정에 의하면 '본말인 '무우'보다 준말인 '무'가 더 널리 쓰이므로 '무'만 표준어로 삼고, '무우'는 버린다'고 하였으므로 동일한 채소를 가리키는 것으로 봄

9) 포도, 머루 - 2개 인정

→ 포도는 적포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머루는 산포도를 통칭하므로 품종이 다른 것으로 보아 둘 다 인정

10) 포도, 캠벨포도 - 1개 인정

→ 포도는 상위 개념의 단어로 사용

11) 딸기, 산딸기(=라즈베리) - 2개 인정

→ 딸기와 산딸기는 품종이 다른 것으로 보아 둘 다 인정

12) 굴, 청굴(풋굴) - 1개 인정

→ 청굴은 굴이 미숙성된 것을 달리 부르는 명칭으로 보아 인정하지 않음

13) 토마토, 방울토마토 - 2개 인정

→ 토마토와 방울토마토는 품종이 다른 것으로 보아 둘 다 인정

14) 호박, 호박잎 - 2개 인정

→ 호박은 열매, 호박잎은 잎채소로 보아 둘 다 인정

15) 감, 연시, 홍시 - 1개 인정

→ 연시, 홍시는 단감이 숙성된 것을 달리 부르는 명칭으로 보아 인정하지
않음

16) 땅콩(두류) - 1개 인정

→ 두류이나 예외로 인정

17) 옥수수(곡류) - 1개 인정

→ 곡류이나 예외로 인정

18) 대봉(감) - 1개 인정

→ 감의 하위 품종으로 인정

진단검사 의뢰점수

연령*	교육년수					
	비문해	무학/문해 ~5년	초졸 6~8년	중졸 9~11년	고졸 12~15년	대졸 이상 16년~
50~59세	-	-	22	24	26	27
60~69세	-	16	21	23	25	26
70~79세	13	14	19	22	22	25
80~89세**	10	11	16	18	20	22

※ 위 표에 제시된 점수의 미만일 경우 진단검사로 의뢰함

* 실제연령의 만 나이 사용

** 90세 이상의 경우 80~89세 연령기준을 준용